

5/29/16

설교 제목: 엘림이 바로 저기인데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출애굽기 15:22-27

- (출 15: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절판주** 시 77:20
-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절판주** 민 33:8
- (출 15: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 (출 15: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절판주** 왕하 2:21, 왕하 4:41
-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출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 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직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오고 좌우는 온통 바위산들로 둘러 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가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 가운데 길을 내셔서

자신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 건너게 하셨으며 건너기를 마치자 다시 물을 흐르게 하여 뒤쫓아 오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몰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애굽을 나오고 홍해까지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출 15:12)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출 15:13)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열흘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머리에 그리며 기쁨에 겨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껏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그저 그랬던, 아니 오히려 살아내기 버거웠던 삶이 새삼 너무나도 아름답게 다가와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바람에 하늘거리며 춤추는 나뭇 가지와 나뭇 잎, 그 사이로 비치는 파아란 쪽빛 같은 하늘이 그렇게 싱그러워 보일 수가 없었지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양 기쁨에 겨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희가 고작 3 일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 춤을 추며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 일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물도 없이 3 일 동안 걸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정만 60 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부녀자를 포함하면 약 200 만으로 추정되는 대 부대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가축들과 함께 사막에서 3 일 동안 물이 없이 걸었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마라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드디어 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제는 살았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너무 절박했던 나머지 덩싹 달려들어 벌컥 들이켰던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물은 홍해에서 땅 속으로 스며들어 온 짠 바다 물과 땅 밑에 있는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시면 쓸 뿐만 아니라 탈이 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 15: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 광야에서 죽을까 두려워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0 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고,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신 이스라엘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삼 일만에 무기력하고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웃긴다. 아니 그렇게 큰 기적들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믿음이 좀 생겨야지 간사스럽게 은혜 받을 때는 좋다고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를 피우더니 겨우 삼 일만에 그까짓 물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원망까지 한단 말이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들에게 직면한 이 상황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0 만명과 가축들이 물도 없이 광야 사막 길을 사흘 동안 걷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한껏 누리지만 그 기쁨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다시 세상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며 절규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온데 간데 잊어버리고 머리에 온통 세상 문제만을 가득 채워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길을 걷게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한가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의 감격을 계속 누리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절망 속에 빠져 들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출 15: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할 때 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는가?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시험(Test)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절망과 고통의 때를 주십니다.

인생이라는 광야 길에 반드시 마라를 만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찬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의 관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홍해를 앞에 두고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출 14:11)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

이스라엘은 이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면 일주일 넉넉히 10 여일이면 지날 수 있는 광야를 40 년동안 헤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큰 복,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신뢰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으며,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특히 이삭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번제단의 제물로 바친 덕분에 하나님을 아주 흡족하게 만족시켜 드리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평생을 순탄하게 큰 복받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이삭만큼 순탄하고 복받은 인생을 산 이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출애굽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이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고 모세가 그대로 행하자 써서 먹을 수 없던 물이 달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 다시 말해 모세의 기도와 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해결책으로 지정하신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 나무는 아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키신 특별한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라의 쓴 물에 나무가 던져져 들어 갔을 때 비로소 쓴 맛이 없어지고 달아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쓴 뿌리가 없어지고 모든 아픔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기 스스로 그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쓴 뿌리의 근원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신데 우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 병든 정신과 영혼, 병든 인격과 정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악한 삶과 환경, 우리의 무너진 가정, 빛나간 운명까지도 다 고치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1)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 2) **의를 행하며**
- 3)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 4)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마라에서 헤어날 수 없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출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두개와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그 난리를 치르고 약 10km 를 더 갔더니 샘이 열두개 있고 종려 나무가 일흔 그루나 있는 엘림이 나왔습니다.

마라와 엘림은 불과 몇시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시간만 더 걸어가면 열두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 나무가 있는 엘림이 나올 것을 모르고 마라에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부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 두개와 일흔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통로 다시 말해 복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생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는 엘림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는 우리의 믿음을 test 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엘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라에 있을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바로 저기인데, 조금만 건디면 엘림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라에 있는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고통으로 절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체험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해진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엘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우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당신의 아픈 가슴을 부여 잡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이해하며 인생 길에 마라를 만나드라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엘림만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